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8월 12일

CUOMO 주지사, 불법적인 상아무역을 막고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다

환경보존국의 고John Fitzpatrick 중위를 기려 제정된 법으로 상아 제품의 불법 판매, 물물교환 또는 구입에 대해 더욱 엄격한 형법을 가하게 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세계 코끼리 개체군을 멸종시키는 행동을 하는 매수꾼과 판매꾼에 대한 민형사상 형벌을 강화하여 불법적인 상아 제품 거래를 막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은 최소 100년 동안 전시되어온 골동품 상아 및 소량의 상아만을 담고 있는 제품을 제한적으로 제외한 코끼리, 맘모스 상아 및 코뿔소 뿔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욱 엄격해진 제재 법안의 채택은 미국에서의 상아 거래를 막고 중요한 종을 보호하려는 주요 조치입니다.

“오늘, 뉴욕주는 전세계에서 동물을 멸종시키고 있는 위험하고 잔인한 산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상아 제품 시장을 제한하면 코끼리와 코뿔소의 도살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뉴욕에서 불법적인 상아 거래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다른 주들과 다른 국가들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 이러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데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상아와 같은 불법적인 야생 제품의 수요로 인해, 밀렵꾼들은 코끼리를 도살하고 상아를 큰 이윤을 남겨 판매하고 있습니다. WCS(Wildlife Conservation Society)는 매일 96마리의 코끼리가 상아 거래를 위해 살해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의 결과, 일부 코끼리와 코뿔소 종들은 멸종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큰 상아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의 입법 기간 동안 Cuomo 주지사와 입법계 수장들은 서로 합심해서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둔 상아 제품 관련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개발하였습니다. 오늘 서명된 이 새 법안은 뉴욕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러한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민형사상의 형벌을 증가하였습니다.

Korean

주지사는 세계 코끼리의 날에 이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날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코끼리와 그들의 서식지의 열악한 상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orlddelephantday.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뉴욕주 환경보전국(DEC)과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 및 맨해튼 지역 변호사 사무소가 실시한 공동 조사로 뉴욕시 소재 보석상에서 200만여 달러 가치의 코끼리 상아 물품을 압류하였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제품을 압류 및 파괴하더라도 보석상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미미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이러한 불법 거래에서 뉴욕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증가할 필요가 드러났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John Fitzpatrick 중위를 기려 제정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환경보존국의 환경보존담당자로 활동하면서 불법적인 상아 판매 조사에 앞장섰고, 새로운 상아 허용 절차를 제정하는 데 힘썼고,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향상시키는 노력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던 사람입니다. Fitzpatrick 중위는 46세의 나이로 2014년 5월 7일에 사망하였습니다.

환경보존국장인 Joe Marte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 입법부는 뉴욕에서의 불법적인 상아 거래를 줄이고 없애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중요한 동식물 개체군을 전 지구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일조를 할 것입니다. 이 법의 새로운 조항은 엄격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John Fitzpatrick 중위에 대한 추억과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을 기려, 환경보존국은 이 새로운 법을 강행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뉴욕주에서 상아 거래를 중단시키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상원 의원 Andrew Lanz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아 불법 거래는 2012년에만 35,000만 마리 이상의 아프리카 코끼리를 학살한 국제적인 위기입니다. 테러와 마약 거래를 지원하는 밀렵꾼들의 행위는 뉴욕 시와 아시아의 수용되는 시장에 의해 부분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법으로 이곳 뉴욕에서는 결코 같지 않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법은 유죄선고 비율을 높이고 강력한 형사 판결을 낳을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 주의회의원 Sweeney, 모든 환경보호운동가와 이와 같은 끔찍한 거래에 목소리를 낸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bert Sweeney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허용에 가득한 상아 시장에 납품하고 테러 단체의 비용을 대주기 위해 하루에 96마리 꼴로 도살되고 있는 코끼리를 보호해줄 것입니다. 이 법은 코끼리 멸종을 위협하고 있는 테러리스트와 조직범죄단체에 의한 무자비한 밀렵 활동으로부터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아 불법 판매 단속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WCS 홍보 실무 부사장 겸 ‘96마리 코끼리’ 캠페인 부장으로 활동하는 John Calvel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뉴욕에서 상아 수입주 1위를 기록하는 뉴욕주에서 상아 거래를 종식시키는 활동에 주지사 및 점점 늘어나는 지지자 가족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입법부가 보여주신 리더십이 전세계 지도자들로 하여금 미래 세대를 위해 코끼리를 구할 수 있는 활동을 배가시키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Peter Lehner 실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은 전세계적으로 코끼리들을 구하기 위한 전지구적 싸움에서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새로운 법안은 미국 내 최대 상아 시장인 뉴욕의 역할을 종식시키고 다른 주와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얼마 남지 않은 코끼리들이 값싼 장신구와 비드로 도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의 뉴욕주 담당관인 Brian Shapir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와 코뿔소를 보호하고 야생동식물 밀렵꾼을 단속하고 극도의 세계 코끼리 상아 및 코뿔소 뿔 거래에서 뉴욕의 역할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 중요한 법안을 제정 및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입법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위해 입법기관과 일반 시민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성원은 위협에 처한 동식물 보호와 같은 세계 문제에 있어서 뉴욕의 오랜 리더십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뉴욕은 상아와 코뿔소 뿔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전례 없는 지구적 밀렵의 위험으로부터 코끼리와 코뿔소를 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감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nhattan 지역변호사인 Cyrus R. Vance,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상아 시장은 지역 해결방안을 필요로 하는 국제적인 문제거리입니다. 밀렵꾼에서 수입업자, 판매업자, 구입자에 이르는 상아 시장에 관여한 사람들은 동식물 위험 행위에 공모한 자들입니다. 이 법은 동식물의 잠재적인 멸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그에 따라 형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Fitzpatrick 중위의 유산을 기리는 법을 제정해주신 주지사와 주입법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